

## 광전문 컨설팅 업체로 화려한 출발

지난 2월 설립되어 업계의 관심과 환영을 받아 2000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는 광산업의 경기침체는 광관련 업계에 너무도 큰 부담으로 다가와 지금은 개별기업체 각각이 생존의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광통신 부품 시장은 침체된 세계시장경기의 바탕에서 치열한 가격경쟁, Brand경쟁까지 합세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광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 광전문 컨설팅 업체로 출발한 엘리어트 인텔리젠스(대표 박진성 [www.elliotoptics.com](http://www.elliotoptics.com))가 지난 2월 설립되어 업계의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다.

박진성 사장은 “현재 광산업 시장은 무척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냉랭한 세계시장의 현실을 극복하고, 같이하는 조직내부의 식구들 그리고 그들을 가까운 곳에서 감싸고 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광기술 및 제품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광관련 기업체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라며 최선을 다해 광산업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관련 업체의 마케팅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

Elliot Intelligence의 사업목표는 단순 명료하다.

광관련 개별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궁극적으로는 광업체 생산제품의 판매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회계와 자금분야를 직접금융시장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업전개를 위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보유는 물론 개별업체, 광 선진국 및 잠재 수요국, 업체들에 대한 Network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분 구성원들은 대기업의 기획 및 해외영업부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해외영업 및 마케팅의 방법과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광제품 기술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력들로 팀원들을 구성하였다.

박 사장은 현대전자 반도체 영업본부와 기획실의 통상정책팀을 거쳐 2000년 광주시가 광집적화 단지를 첨단단지에 조성할 때 이 곳 광주에 내려와 지금까지 광통신부품제조 회사에 종사하면서 해외마케팅, 회계, 자금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Elliot Intelligence의 인재들과 저의 경험이 통합되어 미력이나마 한국광산업 발전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바랍니다”라는 박 사장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움직임 그리고 이라크와 관련한 예측할 수 없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증가시키면서 세계경기의 흐름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현상들은 불황의 저점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즉 경기의 가장 큰 약제는 불확실성이지만 전쟁은 아닙니다. 21세기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후세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생사의 문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사장은 “이렇듯 Elliot Intelligence는 1950년 한국전쟁 시점에 태어나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룬 선배들처럼, 경제적 혼돈의 21세기에 탄생하여 우리주변을 덮고 있는 두꺼운 안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엘리언트 인텔리젠스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설립으로 그동안 광관련업계가 겪었던 많은 난제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케팅, 생산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비롯한 회계, 자금분야의 전략과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업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  
정부는 지식기반 산업인 광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육성과 집적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T 및 광산업분야의 국제적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저는 불황의 두터운 안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물론 자연적인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시장수요가 살아나고, 우리가 생산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판매되어 법인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별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상대하고, 금융권들의 광산업체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시키며 긍정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현재 광산업에 대해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업무 영역의 한계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 태어난 아기에게 수저를 들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국가간에는 왜 무역장벽이 있을까요”라며 초기 관련 산업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초기 광산업에 있어서는 개별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박 사장은 광산업 관련업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